

전북도, '김영란법' 대책마련 나서

내달 2일 '청탁금지법 시행 따른 농축산물 수급대책' 회의... 농축산물 포장 단위 5만원 이하로

전북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위축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는 내달 2일 도내 농축산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사과와 배, 인삼 등의 산지유통시설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에도 대부분 고가로 포장돼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법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는 개별 농축산물의 포장 단위를 5만원 이하로 맞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24.4~32.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업의 생산액 감소도 8.4~10.8%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저수지 안전관리 미흡 70건

전국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74건이 개선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저수지 50곳을 선정해 지난달 24~30일까지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7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경미한 사항 4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고 개선기간이 소요되는 70건은 관계기관들에게 조속히 개선토록 요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방 잡목 방치, 일부 누수, 바다파손 등 시설손상 등이 31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표지판 미설치, 인명구조함 불량, 여방수로 등 파손 등 22건(30%) ▲저수지 안전대책 미수립,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안전관리 14건(19%) ▲쓰레기방치 등 4건, ▲안전교육 미이수 등 3건 등의 순이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저수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비상대피와 대응태세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재해위험 저수지의 정비,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실시결과를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하지 않는 등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와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저수지 내 물놀이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기구 등도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철새도래지, 문화재 지정 등 특수 저수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지자체 관리 노후저수지의 일부 누수, 여방수로개보수 등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77곳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49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조선산업 활성화 위한 실무협의회 현대중공업 조선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27일 전북도청 중합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산업체, 유관기관 등 참석자들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기업 활성화 위해 산학협력 사업 강화

전북대·도·경제통상진흥원과 마케팅 강화 교육·인재 채용 협력 등 추진

전북 여성기업인들의 마케팅 강화와 구인난 해소, 지역발전 등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사업이 강화된다.

전북대학교 산학연구처 LINC사업단과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7일 한국여성경제자총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산학협력은 전북 여성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마케팅 여건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PPT제작과 동영상 편집, 디자인 등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PR기법도 전수할 예정

이다. 또한 여성 기업인들은 회사별로 올 가을 채용 계획과 인턴십, 현장실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북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역시 여성기업의 특성에 맞게 대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적절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도 그동안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사이에 정보 격차를 교정해 교류되지 않아 구인과 구직이 불균형을 이루는 사례가 많았

다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도형 여경총 전북지회장은 "개별 회원 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 채용이 어려운데 이 같은 산학협력 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만족과 유통, 수출 등 마케팅의 전 과정을 크게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전북대 설립원 LINC사업단장은 "다음 달에는 마케팅 전문가를 초빙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군산-석도 카페리 주6회 증편 호소

"증편 무산시 지역편중 심화시켜 지역갈등 야기"

27일 군산-석도 국제카페리 관련업체 대표일동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석도 간 한·중카페리 주6회 증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군산-석도 국제카페리와 동고동락한 화주, 포워더, 관세사, 운송사, 하역사, 여행사 등 100여개 관련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해양수산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운항횟수의 증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의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보 역할을 수행하는 한·중간 국제카페리는 인천항과 평택항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항은 10개항로에 주 26항차를 운항 중이고, 평택항은 5개항로 주 14항차를 운항 중에 있지만, 군산항은 겨우 1개항로 주 3항차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오는 8월말 개최되는 한·중해운회담에서 수도권과 근접한 대신항에 한·중카페리 항로의 개설을 위해 군산-석도 항로의 항차증편은 또다시 의면담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이럴 경우 "한·중카페리의 지역편중을 심화시켜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군산-석도 국제카페리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업체들에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아주 모순되고 비논리적인 정책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국제카페리 증편내용을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의제로 상정시켜 주6회로 증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3항차→6항차)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6일 해양수산부에 방문했다.

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 및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횟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투명해진다

권익위, 지자체 등에 권고

앞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27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의 수익금에 대한 관리·정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소기업청과 전국 22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 측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전통시장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었고, 7개 지자체의 12개 시장은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영수증 증빙이 없는 형식적인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수익 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상 위탁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으며, 수익 발생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위탁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토록 했으며, 주차장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사용 시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박용주 기자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